


보도자료	 <div>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</div>	
	담당부서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제1심의관 심 경 (☎3480-1274) 제2심의관 이효제 (☎3480-1289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대법원,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

■ 대법원은 2012. 2. 16.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, 법관 86명의 신규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2. 2. 27.자로 단행하였음

1. 인사의 규모

가. 법관 전보인사 : 905명

- 지방법원 부장판사 232명
 - 연수원 26기(사시 36회)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음.
 -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0기 부장판사들이,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1기 또는 22기 부장판사들이 맡게 되었음.
- 고등법원 판사 24명
- 사법연수원 교수 17명, 재판연구관 49명
- 고등법원 배석판사 69명, 지방법원 판사 514명

나. 법관 신규임용 : 86명

- 2011. 12. 초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임용신청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9명을 임용하기로 하고, 그 중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86명을 법관으로 임용하였음.
- 법무관 전역 예정자(연수원 38기) 63명은 2012. 4. 1.자로 임용될 예정임.
- 이번 신규임용절차에서는 임용신청자가 법관으로서 적합한 자질, 능력, 품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하고도 엄격하게 심사·평가하였음.
- 이번에 임용된 법관 가운데 시각장애인인 최영 지원자(32세, 사법연수원 41기)가 포함되어,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하였음.
- 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,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, 지난 달 사법연수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.
- 대법원은 최영 판사의 법관 지원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 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는 등 시각장애인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하여 왔음.
- 장애인은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, 시각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 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
- ※ 신규임용 판사 중 다른 특이경력자 등에 관한 보도자료는 2012. 2. 27. 신임판사 임명식에 맞추어 제공할 예정임.

다. 시행일자 : 2012. 2. 27.자

2. 인사의 특징

가.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

- 평생법관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사직자 수가 감소하였고, 이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0여 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.
-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60여 명을 전국 18개 본원 및 10개 대규모 지원에 고르게 배치하고,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들에게 영장재판, 형사단독재판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, 이들을 통해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.
- 앞으로 상당한 경력의 부장판사들이 제1심 재판부터 관여하는 폭이 확대되고,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,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.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

-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,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연수원 24~26기 법관 중에서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함.
- 연수원 24기 5명, 25기 9명, 26기 10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, 그 중 22명은 서울고등법원에서, 2명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맡게 됨.

다. 가사소년재판 강화

- 2012. 3. 1. 대전·대구·광주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개원에 대비하여 전국 가정법원 소속 법관을 5명 증원하였음.
- 또한, 가사소년재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그 재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가사소년전문법관 4명을 신규로 선정하여, 서울가정법원에 2명, 대전가정지원(대전가정법원 승격 예정)과 대구가정지원(대구가정법원 승격 예정) 각 1명씩 배치하였음.
- 이로써 충실한 가사소년사건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.

라.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의 각급 법원 배치

- 2005년부터 시행된 단계적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라 2011. 12. 1.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5년 이상의 변호사, 검사 등 법조경력자 26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여 약 12주 동안의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, 본인의 희망, 경력, 연수원 기수, 신임판사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하였음.
- 대법원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바. 법관 증원

-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이 100명 가량 증가하였고(2012. 4. 1. 법무관 전역 예정자 63명 포함), 고질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각급 법원에 상당수 법관을 증원하게 되었음.

■ 법관인사발령 내역 : 별첨